

## 넷플릭스 외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 분석: 중역을 통한 상호텍스트성 변화를 중심으로

김진아(이화여자대학교)

### 1. 서론

영화 관람 공간이 영화관에서 OTT(over-the-top)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 급격한 변화의 정점에 있는 플랫폼이 넷플릭스이다. 세계 190여 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가입자들에게 다른 국내외 OTT 플랫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OTT 시장에서 점유율 38%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변혜민, 2023, pp. 4-5). 코로나 이후 한국 영화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로 직행하거나 영화관과 OTT 동시 개봉을 선택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영화계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지고 있다(강정수, 2023, p. 8). 이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현지화 전략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막과 제목 등 넷플릭스의 영화 관련 콘텐츠 번역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현지화 및 번역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영화제목 번역은 제작 국가의 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관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단기간에 다수의 영화와 경쟁해야 하는 텍스트라

는 점에서 일반적인 텍스트 제목과는 다른 차원의 다각적인 분석과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즉,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문화적 거리와 통사구조 등의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홍보를 위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며 도착어 문화의 영화제목 관습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문 텍스트가 기존 텍스트들과 형성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영화제목을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에서 2020년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성경의 주기도문(마태복음 6: 9~13) 구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sup>1)</sup>를 변형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성경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했다. 이 영화는 영어 주기도문에서 동일한 구절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sup>2)</sup>을 변주하여 영어 제목을 *Deliver Us from Evil*로 번역했다. 기독교 및 성경에 친숙한 영어권 관객들에게 작품의 원제에 내포된 기독교적 함의를 전달할 목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한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영화제목 번역 연구가 텍스트 또는 번역 기법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요소와 관련 있는 상호텍스트성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예증한다.

본 연구가 제목의 상호텍스트성 분석을 위해 넷플릭스의 외화 제목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화산업에서 OTT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OTT 관련 번역 연구가 자막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제목 번역 방식은 향후 여타 영상 콘텐츠의 제목 번역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두 번째 이유는 OTT의 다국어 현지화가 상호텍스트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영화제목 번역에 영어가 매개어(pivot language)로 사용되는 데, 한국어 번역 단계에서 원제와 영어 제목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 제목이 채택된다. 이 과정에서 원제의 상호텍스트성이 영어 제목에 포함된 영어권 국가들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영화제목 번역에

1) 주기도문의 번역본은 개역한글판과 개정개역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1998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출간한 개정개역판을 참고했다.

2) 성경의 영어 번역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신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을 참고했다(다국어성경 HolyBible).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넷플릭스 외화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상호텍스트성이 번역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어를 매개로 한 중역이 제목의 상호텍스트성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2. 영화제목 번역과 상호텍스트성

Hoek(2011)에 따르면, “제목은 텍스트를 지칭하고 식별하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목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텍스트의 앞머리에 나올 수 있는 언어 기호의 집합”이다(p. 17). 동일한 맥락에서 영화제목은 관객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첫 번째 관문으로 작용하며, 영화 장르나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하는 일종의 광고문구 기능을 수행하여 영화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목의 특별한 기능을 고려할 때, 영화 제목 번역을 연구하려면 일반적인 텍스트 중심의 번역 기법 분석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측면에서 영화제목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텍스트성 개념에 대한 이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상호텍스트성과 번역의 관계를 고찰한 Venuti(2009)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그는 성경과 다양한 문학작품을 예로 들면서 상호텍스트성과 해석, 등가의 문제 등에 대한 풍부한 성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텍스트성을 번역 텍스트 분석에 활용한 연구를 고찰하고, 넷플릭스 영화제목 번역을 상호텍스트성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2.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및 특징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상호’의 뜻을 지닌 ‘inter’라는 접두어가 ‘원문’이나 ‘본문’의 뜻을 지닌 ‘text’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며,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김도남, 2014, p. 87). 넓은 의

미에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한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남윤지(2016)에 따르면 상호텍스트성의 광의의 정의는 번역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없는데, “한 텍스트가 원천 언어 및 문화 내에서 이루는 상호텍스트적 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를 타 언어 및 문화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국 번역의 불가능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p. 9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 즉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유기적 연관성으로 범위를 좁혀서 텍스트를 분석한다.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Kristeva(1980), Genette(1997) 등 여러 이론가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번역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기술한 연구로는 Hatim과 Mason(1990)이 있다. 이들은 상호텍스트성을 서로 다른 텍스트 간의 관련성을 통해 기존의 모든 텍스트 경험과 문화 경험을 연상시키는 기호 체계로 보고, ‘능동적(active) 상호텍스트성’과 ‘수동적(passive) 상호텍스트성’으로 구분한다. Venuti(2009)는 상호텍스트성을 해석과 연관시키며, 번역과 상호텍스트성의 관계를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서사 텍스트 번역 분석에 해당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도 참고할 수 있다. 최미경(2011)은 황석영 작가의 『심청, 연꽃의 길』이 프랑스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원천독자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호텍스트성을 붙여 번역으로 전달하기 위해 번역자들이 후기, 용어집, 암시 등의 번역전략을 사용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독자 수용 측면에서 상호텍스트성 번역 접근법을 논의했다. 슈퍼히어로 장르영화의 자막번역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을 연구한 오정민과 김순영(2019)은 영화의 자막번역을 상호텍스트성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영화의 팬들이 문제를 제기한 자막번역 사례를 분석하여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전략이 번역 오류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영화 자막번역 과정에서 번역가가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계관 및 캐릭터 간의 관계 등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화제목 번역에도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목할 만하다. 가장 최근 연구인 홍정민(2022)은 뮤지컬 「썸씽로튼」 번역을 상호텍스트성 측면에서 고찰하여 원천 텍스트의 언어 및 비언어 요소에 내재한 상호텍스트성이 번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했다. 특히 상호텍스트성 번역 양상을 유형화한 분석 틀을 사용했는데, 본 연구는 이 틀을 변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2.2 Venuti의 상호텍스트성 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Venuti는 2009년 발표한 논문 「Translation, Intertextuality, Interpretation」에서 모든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상호텍스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상호텍스트성을 단순히 인용, 은유, 패러디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미묘하고 암묵적이고 일반적인 관계까지도 포괄하며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전통 안에서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는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수용이라고 제시하며,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상호텍스트성 번역에서의 수용적 측면을 언급한 Venuti의 주장은 영화의 자막뿐만 아니라 제목의 중요한 기능이 관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임을 고려할 때, 영화제목 번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Venuti는 번역과 관련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한다.

- 1) 외국텍스트(foreign text)와 다른 텍스트들 간의 상호텍스트성
- 2) 외국텍스트와 번역텍스트(translation) 간의 상호텍스트성
- 3) 번역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들 간의 상호텍스트성

원문 텍스트(Source Text, ST)가 원천 문화권의 선행 텍스트와 맺는 관계를 의미하는 첫 번째 상호텍스트성은 번역가가 처음 마주하는 난관이자, 가장 일반적인 상호텍스트성 정의에 해당한다. 이는 완벽하거나 정확하게 번역에서 재현되기 힘든데, 번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번역가는 ST 기표의 사슬을 해체, 조정, 이동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ST가 원래의 언어 및 문화와 유리됨에 따라 ST에서 상호텍스트성과 그 맥락이

손실된다. Venuti는 번역을 상호텍스트성의 독특한 사례로 언급하면서, ST와 번역텍스트(Target Text, TT)의 관계를 두 번째 상호텍스트성 유형으로 설정한다. ST와 TT에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적용하면, TT는 ST의 파생 텍스트가 아닌 다시쓰기를 통해 새롭게 창작된 텍스트의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ST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TT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재창작할 여지가 주어지는 것이다. 제목 번역 과정에서 원제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제목이 창작되는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번역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TT와 수용 문화권에 속한 다른 텍스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탈맥락화에 수반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맥락화와 관련이 있으며, 맥락이 소거된 텍스트를 수용 문화 내에 새롭게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Venuti(2009)에 따르면, 번역가의 입장에서 위의 세 관계를 명확한 경계선으로 나눌 수 없으며, 셋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층적 손실 및 보상으로 인해 복잡하게 연관된다(p. 158). 명확한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Venuti가 정의한 상호텍스트적 관계들은 주로 ST와 원천 문화권 텍스트 간의 관계에 집중했던 상호텍스트성 연구의 범위를 TT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로 확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2.3 영화제목 번역 연구

지금까지의 영화제목 번역 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통한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확인이 주를 이루었다. 특정 시기의 영화제목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 기법(음역, 축지역, 의역 등)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김순영, 2006; 오미형, 2011; 임종우와 이상빈, 2016; 지은영, 2002; Xu, 2024; Yin, 2009). 이러한 접근법은 텍스트 내재적 요인에 집중하여 텍스트 차원의 번역 전략이나 방법을 확인하는 데서 그친다는 한계를 가진다. 소수이긴 하지만 텍스트 외재적 요인으로 눈을 돌려 사회 및 문화 맥락 속에서 영화제목 번역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남윤지(2015)는 제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설과 영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사텍스트의 제목을 살펴봤다. 특히 Genette의 초텍스트성(transtextualité) 개념을 토대로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제목을 분석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권유진(2020)은 언어 및 영화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화제목 번역 양상을 확인했다. Yu

등(2019)은 국내 개봉된 외화 제목을 번역 기법에 따라 분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법에 대한 관객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텍스트 중심 분석에서 한 발 나아가 관객의 수용성 및 작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제목은 영화의 내용, 제작 국가의 언어 및 문화, 대상 관객층 등 다양한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번역가는 단순히 텍스트 차원의 언어 치환이 아니라, 원천 문화권의 맥락을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한, 관객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용 문화권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현지화(localization)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 작업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영화제목이 원천 문화권을 떠나 탈맥락화되고 수용 문화권에서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다층적인 상호텍스트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제목에 내재한 상호텍스트성을 확인하고 번역에 구현된 방식을 분석하여 넷플릭스의 상호텍스트성 처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넷플릭스의 다국어 현지화 및 중역 전략을 고찰한다.

### 3. 넷플릭스의 영화제목 번역 접근법

#### 3.1 넷플릭스의 다국어 현지화

넷플릭스는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존 제작사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자막과 더빙을 비롯하여 제목, 예고편, 관련 기사 등 부가 콘텐츠를 현지 언어에 맞추어 번역하는 현지화 전략을 사용한다(딜로이트 컨설팅, 2021). 이 과정에서 다국어 현지화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피벗 템플릿(pivot template),<sup>3)</sup> 중역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3) 분당 단어 수, 자막의 문자 수 제한과 같은 세부 설정과 자막의 인 타임(등장 시점)과 아웃 타임(퇴장 시점) 등 스팟팅(spottting) 정보가 삽입된 자막 파일로, 대개 영어로 작성된다(Georgakopoulou, 2003, p. 210).

다(성승은 등, 2022, p. 46). 미디어 업계에서 현지화는 템플릿을 사용한 다국어 영상번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일반 영화 제작사보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계가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플릭스 록백 자료집(넷플릭스 코리아, 2022)은 넷플릭스의 현지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자막과 더빙뿐만 아니라 제목 번역의 사례도 함께 제시한다. <그림 1>은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영화 「20세기 소녀」의 아트워크(4)인데, 왼쪽부터 살펴보면 매개어(pivot language)인 영어 버전이 가장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으로 제작 언어인 한국어 버전과 다른 언어 버전들이 뒤따른다. 또한, 넷플릭스에 공개된 비영어권 영화의 제목을 살펴보면, 현지화 과정에서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하여 영어 제목의 흔적이 한국어 제목에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본고 3.2 참조). 이를 통해 넷플릭스가 영화제목 번역 작업에도 자막 번역과 유사한 다국어 현지화 전략을 적용하고, 중역을 비영어권 영화제목 번역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 아트워크(넷플릭스, 2022)



### 3.2 영어를 매개어로 한 중역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영상자막 번역을 위해 영어 템플릿을 이용한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주변 언어(peripheral language)<sup>5)</sup>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세계 17개국의 넷플릭스

4) 넷플릭스는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선보이는 시청자 맞춤형 포스터를 아트워크라고 기술한다(Netflix Technology Blog, 2017).

5) Heilbron(2010)은 언어별로 번역된 도서의 국제적인 흐름을 추적한 UNESCO의



작품 목록을 분석한 Lotz 등(2022, p. 514)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넷플릭스 콘텐츠 중 35~44%가 미국에서 제작되며 나머지 약 60%는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공급되고 있다. 경쟁사인 HBOMax와 Disney+의 미국 콘텐츠 비중이 각각 74%, 92%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넷플릭스의 미국 콘텐츠 편중도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콘텐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영어를 매개로 한 현지화가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자막 번역뿐만 아니라 제목 번역에도 영어를 통한 중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비영어권 영화제목 번역에 영어 제목의 흔적이 남는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튀르키예 영화 「인 굿 핸드즈」의 원제는 *Sen Yaşamaya Bak*로 ‘계속 살아가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영어 제목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다’를 뜻하는 *In Good Hands*로 번역되었다. 영어 제목을 음역한 한국어 제목에서는 원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원제의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영어 제목을 한국어로 축자역한 영화도 있다. 이탈리아 영화 *4 Metà*는 ‘2분의 4박자’라는 뜻이지만 영어 제목 *Four to Dinner*를 축자역한 「네 명의 저녁 식사」라는 한국어 제목이 선택되었다. 이 두 영화의 제목 번역은 원제의 의미와 의도가 영어 제목을 거치면서 손실된 사례이다. 이처럼 중역을 통해 원제의 맥락이 소거된 제목이 늘어나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현지화를 통해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확대되었지만, 영어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영어권 문화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Valdez 등(2023)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영어 템플릿을 활용한 영상자막 현지화가 언어 간 위계와 번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들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자막 번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

Index translatorinum을 토대로 국제적 번역시스템이 4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첫 번째 층위는 초중심(hypercentral) 언어인 영어가 차지하고, 그다음 층위는 중심(central) 언어인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구성되며, 세 번째 층위는 준중심(semi-central) 언어로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이 포함되고, 전 세계 도처 번역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모든 주변(peripheral) 언어가 마지막 층위에 속한다.

실시한 결과, 주변 언어 간(예, 한국어-덴마크어) 번역과 중심 언어 간(예, 프랑스어-독일어) 번역에 영어로 작성된 피벗 템플릿이 활용되기 때문에 다국어 현지화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넷플릭스의 현지화 전략이 영화제목 번역에 적용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현지화를 통해 영화제목에 내재한 상호텍스트성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자막 연구와 마찬가지로 언어와 문화 위계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연구 방법

### 4.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방법

넷플릭스는 2016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공개된 외화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표 1 참조). 국내 진출 초기에는 공개 편수가 많지 않았고 현지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넷플릭스 록백 자료집이 2022년에 발간된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전후로 넷플릭스의 콘텐츠 현지화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분석 시점을 설정했다. 다만 분석 대상과 유사한 예를 소개하기 위해 2020년 이전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일부 영화를 언급한 사례도 있다. 또한, 넷플릭스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에 공개된 작품 중 분석에서 제외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대상을 영화로 한정하여 다큐멘터리, TV 시리즈 등은 제외하고, 영화 장르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극장에서 먼저 개봉했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되었던 영화의 경우에 기존에 소개된 번역 제목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방식도 넷플릭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표 1>은 분석 대상 영화(한국어 작품 제외)를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나누고 각각의 연간 편수와 비율을 보여준다(비율은 반올림하여 산정). 2020년에 영어권 외화가 비영어권 외화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비영어권 외

화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2023년에 66%까지 증가했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미국 외 제작 영화의 비중이 타 OTT 플랫폼 대비 높다는 Lotz 등 (2022)의 분석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영어를 매개로 한 중역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이 변화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외화 중에서 비영어권 영화의 원제, 한국어 제목 및 영어 제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표 1  
분석 대상 외화

공개연도	분석 편수	영어권 외화	비영어권 외화
2020	115	62(54%)	53(46%)
2021	151	68(45%)	83(55%)
2022	167	75(45%)	92(55%)
2023	140	47(34%)	93(66%)

#### 4.2 상호텍스트성 분석 틀

본 연구는 넷플릭스가 외화 제목을 번역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영어권 영화제목의 ST와 TT를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히 영어 텍스트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번역을 통해 ST, 매개어(영어) 텍스트 및 TT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변화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Venuti(2009)가 제시한 세 가지 상호텍스트적 관계 중에서 ST와 TT의 관계를 규정한 두 번째 유형은 제외하고, 첫 번째 유형인 ST와 ST 선행 텍스트 간의 관계 및 세 번째 유형인 TT와 TT 선행 텍스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여기에 비영어권 영화의 제목 번역에서 영어 제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중역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이 손실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유형을 관찰한다.

물론 Venuti(2009, p. 158)의 주장처럼 상호텍스트 유형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번역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호텍스트적 관계가 혼재된 영화제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매개어(영어) 제목에 상호텍스트성이 추가된 유형을 분석했는데, 추가된 상호텍스트성이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손실된 경우에 상호텍스트성의 손실 및 추가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 이처럼 어떠한 상호텍스트성 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연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제목들을 유형화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대신 유형화 가능한 제목들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홍정민(2022)이 뮤지컬 번역의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틀 1) 상호텍스트성 강화, 2) 상호텍스트성 보상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한다. 그녀는 뮤지컬 넘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ST의 상호텍스트적 지시가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이는 TT의 상호텍스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다. 해당 연구는 번역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ST에 부재하던 지시가 새로 첨가되거나 기존 지시가 명확해지는 현상을 상호텍스트성 강화로, 번역 과정에서 손실된 ST의 상호텍스트성이 다른 지시로 대체되어 TT에서 상호텍스트성이 확보되는 경우를 상호텍스트성 보상으로 분류했다. 번역의 탈맥락화로 인해 ST의 상호텍스트성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Venuti, 2009),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이 번역된 결과보다는 넷플릭스가 상호텍스트성을 처리하는 의도 및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홍정민(2022)의 분석 틀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한다. ST 상호텍스트성을 TT에 유지하는 전략을 ‘상호텍스트성 보존’, TT에 새로운 상호텍스트성이 성립되는 전략을 ‘상호텍스트성 대체’로 분류하고, 현지화 과정에서 매개어 텍스트를 이용하여 ST 상호텍스트성을 소거한 전략을 ‘상호텍스트성 손실’, ST에 부재하던 상호텍스트성을 매개어 텍스트에 새로 첨가하는 전략을 ‘상호텍스트성 추가’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 1) ST의 상호텍스트성이 TT에 보존
- 2) ST의 상호텍스트성을 TT와 TT 선행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대체
- 3) 중역을 통한 ST의 상호텍스트성 손실
- 4) 중역을 통해 매개어 텍스트에 새로운 상호텍스트성 추가

## 5. 분석 결과

### 5.1 상호텍스트성 보존

#### 5.1.1 종교적 함의가 내재된 제목

한국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와 마찬가지로, 상호텍스트성 보존 전략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종교와 관련된 영화제목을 살펴볼 수 있다. 스페인 스릴러 영화 *Los renglones torcidos de Dios*는 1979년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영어 제목도 원제의 의미를 축자역하여 *God's Crooked Lines*로 번역했다. 스페인어 제목과 영어 제목 모두 ‘신의 굽은(또는 비뚤어진) 선’으로 해석되는데, 한국어 제목은 「신의 구부러진 선」으로 번역되었다. 이 제목은 기독교의 오래된 속담인 “God can write straight with crooked lines”에서 유래한 것으로, 약점과 실수로 인해 ‘구부러진’ 인간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구절이다. 국내 기독교 사이트에서 ‘하느님은 구부러진 곡선 위에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2021). 「신의 구부러진 선」은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성격의 제목으로, 기독교 지식이 없는 시청자라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영화의 장르를 유추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스릴러 장르에 부합하는 제목으로 창작하여 번역하지 않고 유래가 된 기독교 속담의 번역문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기독교적 함의를 전달하여 원제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 *Menéndez: El Día del Señor*는 메넨데스(Menéndez) 신부가 악령이 깃든 소녀를 구마하는 과정을 그린 호러물로, 제목에 주인공 이름과 ‘주의 날’이라는 뜻의 부제 *El Día del Señor*가 포함된다. 기독교에서 ‘주의 날’ 또는 ‘여호와와 의 날’은 예수가 재림하여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대한성서공회 용어사전). 종교적 함의가 담긴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을 제외하고 *The Day of the Lord*로 번역되어 원제의 의미와 의도를 살리는 접근법을 택했다. 한국어 제목은 「메넨데스: 구마의 기록」으로 원제 및 영어 제목의 사전적 의미를 담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에서

행하는 악령 퇴치 의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 소재로 등장하는 ‘구마’를 넣은 제목으로 창작했다(박옥주, 2018). 따라서 원제의 기독교적 상호텍스트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구마’를 번역 제목에 포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5.1.2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제목

ST의 상호텍스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한 또 다른 유형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문학작품 제목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영국 극작가 William Shakespeare의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영제: *The Taming of the Shrew*)를 모티브로 한 폴란드 영화 *Poskromienie złoŃnicy*가 대표적인 예이다. 원제가 해당 희곡과의 상호텍스트성을 구현하기 위해 희곡을 폴란드어로 축자역한 제목을 사용했고, 영화의 한국어 제목도 기존에 번역된 원작 희곡의 제목을 차용했다. 희곡의 문학적 가치와 대중성을 영화제목에 활용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이나 시를 모티브로 하거나 원작으로 사용한 영화의 경우, 기존에 번역된 원작의 제목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1782년에 출판된 프랑스 소설 *Les Liaisons dangereuses*(영제: *Dangerous Liaison*)는 연극, 영화, 드라마 등으로 여러 차례 리메이크된 작품이다. 한국에서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와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가 제작될 만큼 인지도가 높다. 2022년 넷플릭스에 공개된 동명의 리메이크 영화 *Les Liaisons dangereuses*도 기존에 번역된 한국어 소설의 제목 「위험한 관계」를 사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모든 영화가 원작의 번역 제목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칠레 작가 Antonio Skármeta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영화 *Ardiente Paciencia*(영제: *Burning Patience*)의 경우, 우리말로 「불타는 인내」로 축자역되었다. 이 소설은 1994년 개봉한 영화 「일 포스티노」(영제: *IL Postino: The Postman*)의 원작이기도 한데, 영화 「일 포스티노」의 세계적인 흥행 덕분에 원래 소설 제목이 *Ardiente Paciencia*에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의미의 *El Cartero de Neruda*(영제: *Neruda's Postman*)로 바뀌어 재출간되었다. 이후 소설은 국내에서도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주목할 점은 넷플릭스가 2022년 공개한 영화 「불타는 인내」의 경우, 「일 포스티노」 또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재출간되기 전의 원작 소설 제목의 축자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존 흥행작의 제목인 「일 포스티노」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살리는 대신에 원작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임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원작 소설 제목 *Ardiente Paciencia*는 저명한 프랑스 시인 Jean Nicolas Arthur Rimbaud의 시구절 ‘여명이 밝아올 때 불타는 인내로 무장하고 찬란한 도시로 입성하리라(Et à l'aurore, armés d'une ardente patience, nous entrons aux splendides villes)’에 포함된 표현이다. 원작 소설 *Ardiente Paciencia*에 등장하는 시인 네루다가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서 인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ST가 ST 선행 텍스트와 형성한 상호텍스트성을 TT에 구현하기 위해 기존에 번역된 영화제목을 피하고 새롭게 축자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작품과 영화제목 간의 상호텍스트성이 보존된 사례는 주로 영어권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의 문학을 포함하는 서구 주류 문학<sup>6)</sup>을 원작으로 하거나 이러한 문학작품과 연관성을 가지는 제목에서 관찰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어권 및 비영어권 영화를 통틀어서 총 110편이 소설 및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거나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화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원제가 서구 주류 문화권의 작품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형성하는 영화가 69편, 비주류 문화권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41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상호텍스트성 보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구 주류 문학작품과 관련된 영화 69편 가운데 36편(약 52%)에서, 비주류 문학작품과 관련된 영화의 경우 41편 중 7편(약 17%)에서 원작과의 상호텍스트성이 우리말 제목에 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가운데서도 언어와 문화의 영향력에 따라 제목에 원제의 상호텍스트성이 보존되

6)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 출판 생산 통계’에 따라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정리된다(송광호, 2023).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도서가 한국에서 서구 주류 문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는 서구 주류 문학을 이같이 4개 국가의 문학으로 정의했다.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번역서가 애니메이션 장르에 속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는 비율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비주류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제목 가운데 19편, 즉 46%가 매개어 텍스트인 영어 제목의 음역을 우리말 제목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2021년에 공개된 스페인 영화 *A través de mi ventana*는 영제 *Through My Window*를 음역한 「스루 마이 윈도우」로 국내에 소개되었고, 폴란드 영화 「포가튼 러브」, 스페인 영화 「킬러 북클럽」, 이탈리아 영화 「가톨릭 스쿨」, 스웨덴 영화 「블랙 크랩」도 동일한 전략을 취했다.

## 5.2 상호텍스트성 대체

### 5.2.1 시리즈물의 제목

시리즈로 공개된 영화들의 우리말 제목이 원제와 달라지지만, 번역된 제목들 사이에 ‘연작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를 ST의 상호텍스트성이 대체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12년 공개된 두 프랑스 경찰 콤비의 수사극 *De l'autre côté du périph* (영제: *On the Other Side of the Tracks*)는 ‘파리 외곽 순환도로 반대편’을 뜻하지만, 국내에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한국 영화 「투캅스」의 제목을 변주하여 「투캅스 인 파리」로 소개되었다. 2022년에 속편이 제작되며 제목이 ‘순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을 뜻하는 *Loin du périph* (영제: *The Takedown*)로 정해졌지만, 시리즈물의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존에 번역된 전작 제목을 추가하고 후속편의 영어 제목을 부제로 덧붙인 「투캅스 인 파리: 더 테이크다운」로 번역되었다.

표 2

시리즈물 제목 번역 사례

프랑스어 원제	영어 제목	한국어 제목
De l'autre côté du périph	On the Other Side of the Tracks	투캅스 인 파리
Loin du périph	The Takedown	투캅스 인 파리: 더 테이크다운



### 5.2.2 익숙한 제목 패턴 활용

남윤지(2015)에 따르면 “제목에 이미 알려진 구절을 사용하면 언어-문화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기억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는데(pp. 112-113), 도착어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패턴을 활용한 영화제목 번역도 상호텍스트성이 대체된 사례로 볼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폴란드 영화 *Jak pokochalam gangstera* (영제: *How I Fell in Love with a Gangster*)는 「그렇게 난 갱스터와 사랑에 빠졌다」로 번역되었다. 이는 2013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으며 작품성으로 화제를 모은 일본 영화, Hirokazu Koreeda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원제: *そして父になる*)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제목이다. 넷플릭스는 *How I Became a Gangster, Then Barbara Met Alan*도 각각 「그렇게 난 갱스터가 되었다」(2020), 「그렇게 바버라는 앨런을 만났다」(2022)로 번역하여 유사한 패턴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영화는 아니지만 브라질 다큐멘터리 *Elize Matsunaga: Era Uma Vez Um Crime*(영제: *Elize Matsunaga: Once Upon a Crime*)도 원제나 영어 제목과 다른 의미를 지닌 부제를 추가하여 「엘리지 마쓰나가: 그렇게 남편을 죽였다」(2022)로 번역되었다. 영화의 내용과 장르가 모두 다르지만 ‘그렇게~’라는 익숙한 패턴을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잘 알고 있는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들이다.

또 다른 예로 세계 주요 도시를 전면에 내세운 제목을 들 수 있다. 앞서 시리즈물의 상호텍스트성 사례로 언급했던 「투캅스 인 파리: 더 테이크다운」에는 원제에 없는 ‘인 파리’가 삽입되었다. 마찬가지로 *After the Wedding*도 ‘인 뉴욕’이 삽입되어 「애프터 웨딩 인 뉴욕」으로 번역되었다. 장소 앞에 사용되는 영어 전치사 ‘인(in)’과 잘 알려진 도시가 함께 나오는 패턴은 우리말로 번역된 영화제목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영제: *Midnight in Paris*)와 「레이니 데이 인 뉴욕」(영제: *A Rainy Day in New York*)은 원제에 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in) + 도시’를 그대로 음역했다. 도시는 아니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앳(at)’을 활용하여 ‘앳(at) + 장소’ 패턴을 음역한 「미드나잇 앳 매그놀리아」(영제: *Midnight at the Magnolia*)도 유사한 예이다. 축자역이나 의역을 통해 다른 형태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역을 사용하여 ‘영

어 전치사 + 도시(장소)’의 형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가 의도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3 중역을 통한 상호텍스트성 손실

상호텍스트성 손실은 비영어권 영화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어를 통한 중역이 활용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지화를 통해 원제의 상호텍스트성뿐만 아니라 매개 텍스트인 영어 제목의 상호텍스트성까지 개입되면서 번역 작업이 한층 복잡해진다. 영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다국어 현지화에서 비영어권 작품의 원제보다 영어 제목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원제의 상호텍스트성이 생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브라질 코미디 영화 *Barba, Cabelo e Bigode*(영제: *A Cut Above*)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미용실 일을 도우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미용사의 꿈을 펼치게 되는 성장 영화이다. 원제의 사전적 의미는 ‘수염, 머리카락, 콧수염’인데, 관용적으로 ‘풀 서비스(full service)’, 즉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Dicionário inFormal)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상호텍스트성이 포함되어 있다. 영어 번역 과정에서 ‘머리를 자르다’를 뜻하는 단어 “Cut”이 포함되어 동음이의어 효과를 노린 *A Cut Above*가 제목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한 수 위의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영어 관용구 “a cut above the rest”를 변형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어 제목의 음역 「컷 어버브」가 우리말 제목으로 선택되면서 원제와 영어 제목의 상호텍스트성이 손실되어 제목에 내재된 작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비영어권 영화의 경우, 원제보다는 영어 제목을 주 번역 대상으로 삼는 다국어 현지화 과정의 특성이 드러난 사례이다.

우리말 제목으로 영어 제목 음역을 사용하여 종교적 상호텍스트성이 손실된 작품도 있다. 브라질 영화 *Um Natal Cheio de Graça*(영제: *Christmas Full of Grace*)는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문인 성모송의 구절 “Hail Mary, full of grace”를 변주하여 제목에 담았다. 성모송의 한국어 번역본 구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변형하여 ‘은총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로 번역했다면 상호텍스트성이 보존될 수도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풀 오브 그레이스」라는 한국어 제목을 선택하여 종교적 함의가 생략되었

다. 포르투갈어 원제의 “Graça”는 여주인공의 이름으로 원제는 가톨릭 성모 송 구절에 여주인공 이름을 결합하여 언어유희 효과를 의도했다. 실제로 우리말 자막에도 여주인공 이름이 ‘그라사’로 등장하는데, 음역 제목이라도 ‘크리스마스 폴 오브 그라사’로 옮겼다면 원제의 의도를 일부는 살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5.4 중역을 통한 상호텍스트성 추가

현지화 과정에서 영어로 중역되면서 원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호텍스트성이 매개 텍스트에 성립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제목에 추가된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한국어 제목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상호텍스트성 추가 유형으로 분류한다.

두 여성의 사랑을 그린 일본 로드 무비 「라이드 오어 다이」(원제: 彼女)의 경우, ‘그 여자’ 또는 ‘그녀’를 뜻하는 원제는 상호텍스트성을 의도한 제목은 아니다. 하지만 영어 제목이 *Ride or Die*로 번역되면서 원제에는 없던 상호텍스트성이 추가되었다. “Ride or Die”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의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구절로, 유명 로드무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영제: *Bonni and Clyde*)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Wisby, 2023). 두 주인공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와 범죄에 연루되어 도피행각을 벌이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라이드 오어 다이」는 내용이 유사하고 로드무비라는 장르적 유사성도 지닌다. 원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원제가 아닌 영어 제목이 한국어로 음역되면서 원제의 의미와 영어 제목의 상호텍스트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특히 “Ride or Die”가 할리우드 액션 영화 시리즈 속편에 부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95년에 처음 제작된 시리즈물 「나쁜 녀석들」(영제: *Bad Boys*)은 2024년에 4편 *Bad Boys: Ride or Die*를 선보였는데, 이 최신 속편의 부제 “Ride or Die”가 한국어로 음역되어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한국 관객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영제: *The Fast and the Furious*)는 10번째 시리즈가 *The Fast and the Furious: Ride or Die*로 공

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부제를 음역한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가 한국어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두 시리즈물이 한국 관객에게 잘 알려진 흥행작이며 모두 액션 영화이므로 자칫 시청자에게 넷플릭스의 「라이드 오어 다이」도 액션 영화라는 잘못된 상호텍스트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영어권에서 “Ride or Die”를 성소수자 또는 주체적인 여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으므로(Ride-or-die chick, 2024), 일부 시청자들이 젠더 측면에서 「라이드 오어 다이」에 내재된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이 국내 대중에게는 유명 액션 영화의 제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젠더 관점의 상호텍스트성이 완전히 보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어 제목에 새로운 상호텍스트성이 추가되었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영어 제목이 축자역된 경우도 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튀르키예 코미디 영화 *Merve Kull*는 주인공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어 제목은 *You Do You*로 원제와 달리 주인공이 삶의 역경을 헤쳐 나가는 방식을 관용구로 표현했다. “You do you”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신조어로 최근 영어권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Cambridge Dictionary), 원제에는 없던 상호텍스트성이 영어 제목에 추가된 사례이다. 영어 제목을 축자역한 「내 방식대로 할게요」가 한국어 제목으로 선택되면서 영어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이 유지되었고, 동시에 주인공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내세운 원제의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6. 결론

### 6.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넷플릭스가 비영어권 외화의 제목을 번역하면서 영어를 매개어로 활용한 사례를 상호텍스트성 보존, 대체, 손실, 추가 전략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영향력 및 위계질서 측면에서 살펴볼 가

치가 있는 특징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원제의 상호텍스트성 보존 전략은 서구의 주류 문화를 확산하는 채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로 기독교적 함의를 지닌 영화제목과 서구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제목이 어떻게 원제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번역되는지 확인했다. 종교적 색채를 띤 영화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기독교 속담 구절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원제에 포함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의식을 제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적 상호텍스트성을 보존한 예가 관찰되었다.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경우, 폴란드 영화 *Poskromienie złoŃnicy*와 같이 비영어권 작품이지만 유명 희곡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영어 제목, 한국어 제목에 반영하거나 칠레 영화 *Ardiente Paciencia*처럼 영화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유명한 서구 문학작품의 구절을 차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비주류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제목과 비교하여, 영어권 및 서구 주류 문화권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영화제목에서 상호텍스트성이 보존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주류 문화권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제목 중 상당수가 영어 제목의 음역을 우리말 제목으로 사용한 것도 영어권 문화의 영향력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상호텍스트성이 보존된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는 못했지만, 범위를 문학작품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넷플릭스의 현지화가 서구 주류 문화와 영화제목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서구 주류 문학작품의 영향력이 공고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역을 통해 원제의 상호텍스트성이 손실되거나 영어 제목에 원제에 부재하던 상호텍스트성이 새로 형성된 제목들은 영어 및 영어권 문화로의 수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상호텍스트성 손실의 예는 대부분 영어 제목을 음역하여 그 음가를 한국어로 옮긴 제목이다. 음역이란 원천텍스트의 발음을 도착어로 표기하여 출발어가 갖는 청각적 효과를 유지해 강한 이국적 정취를 전하는 방법으로(Yin, 2009, pp. 171-172), 원천텍스트의 문화적 요소가 완전히 탈맥락화되고 상호텍스트성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번역 기법이다. 비영어권 영화지만 원제와 영어 제목이 동일한 작품을 포함하면, 분석 대상 비영어권 영화 총 321편 가운데

약 37%인 118편이 영어 제목을 음역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 제목이 또 다른 상호텍스트로 작용하면서 한국어 제목에 원제보다 영어 제목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ST에 부재하던 상호텍스트성을 영어 제목에 추가하는 현지화 전략은 영어권 문화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영어권 사회,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둔 상호텍스트성이 매개어 텍스트에 새로 형성되어 음역 또는 축자역 방식으로 우리말로 옮겨지면, 시청자들은 영어권의 시각으로 해석된 제목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언어의 위계질서 측면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막 번역 양상을 연구한 Valdez 등(2023)은 템플릿에 기반한 중역으로 인해 초중심 언어인 영어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영어 중심의 전통적인 언어 위계질서가 강화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영어를 통한 현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비영어권 콘텐츠의 가시성과 접근성이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어 다양성이 축소되면서 영어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살펴본 넷플릭스의 외화 제목 번역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다국어 현지화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6.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의 보존, 대체, 손실, 추가의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상호텍스트성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영화 제목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상호텍스트성 보존 유형을 고찰하면서 종교적 함의와 문학작품으로만 분석 대상을 한정할 것도 한계로 남는다. 연구 방법의 제약으로 인해 정량적 연구 대신 정성적 분석에 집중하여 비영어권 영화제목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 현황을 제시하는 데 그친 점도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유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기반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 범위 측면에서는 넷플릭스라는 단일 OTT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국어 현지화 및 영어를 통한 중역이 영화제목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OTT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개된 영화도 전체 데이터의 일부이므로 넷플릭스 전체의 경향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영화제목 번역에 대한 다양한 관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행한다면, 상호텍스트성 분류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OTT 플랫폼들의 현지화 과정과 일반 상업영화의 제목 번역 방식을 비교하고 변화 방향을 추적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번역 기법 분석 위주의 기존 영화제목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제목 관련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영화제목 번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사회,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또한, OTT 플랫폼 업계의 선두 주자인 넷플릭스의 다국어 현지화를 살펴보고, 매개어인 영어가 제목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관련 번역 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 마케팅 등 OTT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측면에서 학제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도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정수. (2023). 할리우드의 반격과 게임 산업: OTT 산업 전략 변화. 미디어 이슈&트렌드, 56, 1-10.
- 김도남. (2014).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 김순영. (2006). 스코포스의 관점에서 본 영화제목 번역 유형. 통번역교육연구, 4(2), 31-46.
- 권유진. (2020). 영화 제목으로 본 영한 번역기법 연구: 영화 산업 정책과 언어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2), 9-42.
- 남윤지. (2015).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 서사텍스트의 제목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6(3), 85-126.

- 남윤지. (2016). 유명하는 텍스트의 안과 밖: 상호텍스트성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7(5), 91-125.
- 넷플릭스. (2022). 2022년 넷플릭스 룩백 자료집(2022 Netflix Guide). 2024. 8. 13. 검색, <https://about.netflix.com/ko/news/2022lookback>
- 다국어 성경 HolyBible. (n.d.).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2024. 8. 15. 검색, [http://www.holybible.or.kr/B\\_NIV/](http://www.holybible.or.kr/B_NIV/)
- 대한성서공회. (n.d.). 여호와와 날. 대한성서공회 용어사전. 2024. 8. 10. 검색, [https://www.bskorea.or.kr/prog/popup\\_term.php?idx=431&kind2=ger&s=여호와와의%20날](https://www.bskorea.or.kr/prog/popup_term.php?idx=431&kind2=ger&s=여호와와의%20날)
- 덜로이트 컨설팅. (2021. 9.). 넷플릭스 코리아의 사회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 2024. 8. 13. 검색, <https://about.netflix.com/ko/news/netflix-korea-the-story-so-far>
- 박욱주. (2018. 11. 4.). 무속과 가톨릭의 친교성: ‘검은 사제들’, ‘곡성’, 그리고 ‘손 the Guest’.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7351>
- 변혜민. (2023). 국내 미디어 콘텐츠가 가야하는 길: 글로벌 OTT 미디어 콘텐츠 사례를 통한 국내 OTT 해외 진출 방안 모색. *AD & Media Trend Report*, 3, 1-61.
- 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2021. 5. 11.).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 - 하느님은 구부러진 곡선위에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 2024. 8. 13. 검색, <http://joseph.nflint.com/x/fran/53867>
- 성승은, 한유진, 임현경. (2022). 넷플릭스의 중역을 통한 다국어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3(1), 45-80
- 송광호. (2023. 7. 17.). 작년 1만여종 번역 출간...번역서 1위는 일본 책.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7123400005>
- 오미형. (2011). 한국영화제목의 효과적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2), 87-110.
- 오정민, 김순영. (2019). 슈퍼히어로 장르영화 자막번역의 상호텍스트성 — 팬들이 문제제기한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3), 101-124.
- 임종우, 이상빈. (2016). 외화제목의 번역규범에 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 2014년도 국내개봉 영미(英美) 영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1), 127-146.
- 지은영. (2002). 수입영화 제목의 번역 유형에 관한 연구: 미국영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RISS.
- 최미경. (2011). 「심청, 연꽃의 길」 상호텍스트성의 프랑스 수용사례연구. *프랑스학연구*, 58, 423-444.
- 홍정민. (2022).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쌈뽀로튼>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3), 125-153.
- Cambridge Dictionary. (n.d.). You do you. In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August 14, 2024, from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you-do-you>
- Dicionário inFormal [Informal Dictionary] - Dicionário online Português [Online Portuguese Dictionary]. (n.d.). Barba, Cabelo e Bigode [Beard, Hair, and Mustache]. In *Dicionário inFormal.com dictionary*. Retrieved August 13, 2024, from <https://www.dicionarioinformal.com.br/>
- Genette, G. (1997). *Palimpsests: Literature in the Second Degree* (C. Newman & C. Doubinsky, Tran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2)
- Georgakopoulou, P. (2003). *Reduction levels in subtitling: DVD subtitling: A compromise of trend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rrey.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gman.
- Heilbron, J. (2010).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world system of translation.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Translation and Cultural Mediation'*, 1-7.
- Hoek, L. H. (2011). *La marque du titre: Dispositifs sémiotiques d'une pratique textuelle* [The mark of the title: Semiotic devices of a textual practice] (Vol. 60). Walter de Gruyter.
- Kristeva, J. (1980).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Columbia University Press.
- Lotz, A., Eklund, O., & Soroka, S. (2022). Netflix, library analysis, and

- globalization: Rethinking mass media flows. *Journal of Communication*, 72(4), 511-521.
- Netflix Technology Blog. (2017, December 8). Artwork Personalization at Netflix. <https://netflixtechblog.com/artwork-personalization-c589f074ad76>
- Ride-or-die chick. (2024, April 22).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Ride-or-die\\_chick](https://en.wikipedia.org/wiki/Ride-or-die_chick)
- Valdez, S., Pięta, H., Torres-Simón, E., & Menezes, R. (2023). Subtitlers' beliefs about pivot templates: What do they tell us about language hierarchies and translation quality in streaming service platforms?. *Target*, 35(3), 426-454.
- Venuti, L. (2009). Translation, intertextuality, interpretation. *Romance Studies*, 27(3), 157-173.
- Wisby, K. (2023, October 24). Gatsby Flapper Girl.  
<https://gatsbyflappergirl.com/bonnie-and-clyde-ride-or-die-quotes/>
- Xu, L. (2024). A brief analysis of English film title tran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ategies of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Research*, 7(2), 177-182.
- Yin, L. (2009). On the translation of English movie titles. *Asian Social Science*, 5(3), 171-173.
- Yu, H-N., Park, H., & Jeong, C. (2019). Translation strategies for film titles in Korea: Exploring actual viewers' responses in cognitive and behavioural aspect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Institute*, 23(3), 89-116.

## **Intertextual dynamics in Netflix movie titles: The impact of English pivot translation**

**Jinah Kim** (jinah214@gmail.com)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Netflix, a global over-the-top (OTT) service provider, employs pivot translation—using English as an intermediary language—to offer subtitles, movie titles, and other resources in multiple languag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etflix adapts intertextual references when translating foreign movie titles into Korea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effects of pivot translation on the intertextuality inherent in these titles. Utilizing Venuti's (2009)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original non-English titles, the English pivot text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 analysis reveals that some original titles lose or alter their intertextuality, while new intertextual connections sometimes emerge in the pivot texts. These findings carry two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Netflix's approach to preserving the intertextuality of original movie titles helps disseminate the Western mainstream culture. Second, the modification of intertextuality through pivot translation reinforces the hegemonic role of English in global media.

**Keywords:** English as a pivot language; intertextuality; movie title translation; language hierarchy; streaming

**키워드:** 영어 매개어, 상호텍스트성, 영화제목 번역, 언어 위계질서, 스트리밍

김진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생

jinah214@gmail.com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